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로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정환 편집국장: 이영수

교회설립 49주년을 맞이하며(1)

다음주일(9월8일) 찬양예배는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로



예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언급을 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7).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순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니, 그것은 주께서 분명히 "내가 ...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음부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기 마련이다. 확실히 그렇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병기(兵器)이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천국으로 착각하기 안락함에 빠진다면, 교회는 스스로 완수를 보는 앞에서 생명의 상실과 멸망을 사조하고 말 것이다(마 5:13).

그렇다면 교회가 순결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 역시 확실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순결해야 한다(고전 12:27).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명의 피가 흐르고 정결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순결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罪)이다. 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잔을 우상의 소굴로 만든다(마 21:13).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는 오로지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기이며, 죄를 씻기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방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타락한 죄를 씻기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마 18:18). 좀 더 실재적으로 말한다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동시에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다스림이 언제나 존재해야만 한다(마 18:17).

"충헌교회"가 올해로 49주년을 맞이하였다. 몇 년 동안 충헌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순결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담요점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점차로 깨닫게 되었다. 비록 새로운 탄생을 위한 산고(産苦)의 순간을 겪기도 했지만, 교회는 구주를 의뢰함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고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해외로 파송(派遣)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참된 믿음의 담요점임을 확신한 이상, 교회는 다시 오실 교회의 주인을 기다림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살아갈 뿐이다.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 교회설립 49주년을 맞이하는 다음주일(9월8일) 찬양예배는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로 드리고자 한다. 가브리엘 찬양대에 의해서 하이드너, Haydn의 '천지창조' 제1부까지 들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께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란다.

2002년도 제5차 성찬식 및 전(全)교인 연합예배

시편 116편은 '주의 만찬'을 아주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이다. 구약의 본문이 주의 만찬의 역사적 배경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사실 성찬예식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속죄와 구속에 연관시켜 볼 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갑자기 마련된 식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율월절을 지켜왔고, 그 절기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찬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성례로 지켜지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거룩한 식탁에서 주의 잔을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은 2002년도 제5차 성찬식이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에 걸쳐서 시행된다. 이번 성찬식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성찬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성찬'에 대한 소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자신을 먹고산다는 비유를 사용하셨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51). 이것이 청중들을 화나게 하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욱 강조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요 6:54~55).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된 만나.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다. 동시에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 생명의 사역은 신자로 하여금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생명을 준다(E. P. Clowney).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논의를 가진다. 도대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이 말은 비유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유는 진리를 설명하는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급격한 비유(신인적인 예식) 자체보다는 이 비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과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에 대한 언급이다.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흘러지는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는(부활과 영생)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고백과 지속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겸손함을 필요로 한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종이 내려려 하는 일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니 네 눈물이 주마로 눈물을 되었도다'(시 42:3)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을 때,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속박의 다른 얼굴임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며 감정을 상하게 하여 논을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믿음만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믿음의 토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겹칠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라"(히 5:7~9).

다음주일(9/8)부터
식당 사용합니다

식당 보수 및 화장 공사까지 금주 내에 일부 마무리 됨에 따라 다음 주일(9/8)부터는 식당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지하1층 만나홀). 특히 공사 일정이 연장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식당 천정 위를 지나 선교관, 본당으로 이어지는 각 종류의 배관들이 매우 낡아 교체할 수밖에 없음 공사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과 인내로 함께 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공사로 식당 주방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단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 단장한 식당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모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종욱 전로)

Gate of death & Gate of Zion (Psalm 9:10-14)

"And those who know Your name will put their trust in You, For you, O Lord, have not forsaken those who seek You. Sing praises to the Lord, who dwells in Zion; Declare among the peoples His deeds. For He who requires blood remembers them. He does not forget the cry of the afflicted. Be gracious to me, O Lord: See my affliction from those who hate me. You who lift me up from the gates of death, That I may tell of all Your praises, That in the gates of the daughter of Zion I may rejoice in Your salvation."

A trusting believer wrote this song for our Bible. It is an amazing confession! He begins by saying, "And those who know Your name will put their trust in You, For you, O Lord, have not forsaken those who seek You" (v. 10). This person has experience in trusting God. He knows that if someone is really looking for God, God will never forsake them. His knowledge about God comes from his past encounters, that's why he says, "Sing praises to the Lord, who dwells in Zion; Declare among the peoples His deeds" (v. 11). He exhorts believers to praise God and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other people. Why? "For He who requires blood remembers them; He does not forget the cry of the afflicted" (v. 12). This beautiful verse reminds us that God remembers and doesn't forget the weeping of His children. Truly, this is wonderful grace.

In this world it is hard to find anyone who is concerned for the poor and indisposed. Yet this psalmist really prays, "Be gracious to me, O Lord; See my affliction from those who hate me. You who lift me up from the gates of death, That I may tell of all Your praises, That in the gates of the daughter of Zion I may rejoice in Your salvation" (vv. 13&14). Why did the person who wrote this song trust in God? Because he knew that God remembers the crying of the afflicted, the poor people. My friends, this is good news. This is a great message. You and I know that in this world people favor the rich and powerful, and ignore the poor and helpless. Only through Jesus Christ can you find someone who remembers and cares. The man who wrote this song had experience, that's how he was able to make these conclusions. Yes, David faced very hard conditions and almost died. He stood on the gates of death, but he saw the gates of Zion.

The gates of death await all who live. It is appointed for mankind to die once and face judgment (Heb. 9:27). This unavoidable reality brings out the big questions: What is life? What is death? All people, at one time or another, ponder these questions. Death is a scary thing. Solomon reminds us, "For the living know they will die; but the dead do not know anything, nor have they any longer a reward, for their memory is forgotten" (Eccl. 9:5). The dead have no further opportunities of securing compensation for their labors. After you die, there's no second chance. Also, everyone knows that they are going to die, but the bad thing is that no one knows what happens after death. This death brings everyone through its gates. It's a big problem. It's not our will, but these gates open to each person. And no man has authority over the day of death (Eccl. 8:8). No one can control the day of their death.

Why are the gates of death open? The gates of death are open because of sin. Romans 5:12 says,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After Adam sinned, he and his descendants could only beget sinners, so all men are under the sentence of death, the penalty of sin. The gates of death bring fear and terror. Do you remember the "9-11" incident in New York? It was the top news story because thousands of people died in seconds. People fear death.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conquered death to "free those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subject to slavery all their lives" (Heb. 2:15). Everyone has to face the problem of death. Everyone has to pass through the gates of death. You can't control this destiny, it is open to each one of us

because of sin. The gates of death bring fear and terror to all people.

The gates of Zion awaits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David wrote today's psalm because he had experience with God delivering him from the gates of death. Now he is singing at the gates of Zion! There is hope. There is a way for the living. There is a way we can pass through the gates of Zion. We have a choice. Just as Adam's sin brought certain results, so did the death of Christ. Yet this does not mean automatic salvation, for men must receive the grace God offers. In this world there is a choice. Everyone who is scared of death can find peace and hope in Christ. Jesus tells us,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b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are those who enter through it. For the gate is small and the way is narrow that leads to life, and there are few who find it" (Mt. 7:13&14). Jesus said that He wa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He wants us to go the narrow way because that way leads to eternal life.

What is the narrow way? The narrow way is the way of the cross. It means denying yourself and following Jesus. The result of this kind of lifestyle leads to salvation. Isaiah 26:1&2 tells us that the redeemed will sing this song of praise during the Millennium. "We have a strong city; He sets up walls and ramparts for security. Open the gates, that the righteous nation may enter, The one that remains faithful." Amen. The righteous are believers. Believers will enter the gates of Zion. There is hope. There is a future. "This is the gate of the Lord; The righteous will enter through it" (Ps. 118:20). Righteousness comes through faith. Jesus is the door to heaven (Jn. 10:7). He is the gate of Zion.

We are talking about alarming things when we speak of the gates of death and the gates of Zion. We know which is which because of sin. Death will come to us, but Jesus is the way. He is the gate to heaven. We have hope there. Both gates are controlled by God. He reigns over all. That's why David praised the Lord God from the gate of death. Paul reminds us, "for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or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For this end Christ died and lived again,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of the living" (Rm. 14:8&9). If you find Jesus, you already see both gates.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Rv. 1:8). He sees us in everything, from our beginnings to our end.

We always stand near both gates. We don't have any power of our own to open or close either gate. We cannot return from the gates of death. We cannot overcome these gates. Whenever our turn comes, we cannot delay or cancel. As each sun rises and time passes, your heartbeat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going through the gate. The real important thing is that if you are ready you are happy. You have a choice so you can be prepared. I hope the gates of our death lead to the fruit of the living tree which is in the city of everlasting joy.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so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enter by the gates into the city" (Rv. 22:14). Amen. I want you to pass through the gates of death and go to the gates of Zion. There's a way. Jesus told u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n. 3:3). Listen, Jesus is the way to the kingdom of God. He is the only way. 

죽음의 문과 시온의 문

(시 9:10~14)



김성원 목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이다 또 흠령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한 진실한 신자가 성경에 이 노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10절). 이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1절). 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각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12절). 이 아름다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과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슬픔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진실로 오늘의 본문은 경건로움이 아니라 온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13~14절).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노래를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피로움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탄식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좋아하지만,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의 경험에 의한 교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 의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매우 어려운 상황과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다른 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 앞에서 있었지만, 구원으로 이르는 시온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

죽음의 문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인류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히 9:27). 이 피할 수 없는 실체는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 시대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웁니다. “무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니 이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있어버린 바리새”(전 9:5).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들의 수치를 되돌려 받을 확실한 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죽음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난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날을 뛰어넘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전 8:8). 또한 자신들의 죽음의 날조차 변경하거나 옮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

왜 죽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죽음의 문은 죄로 말미암아서 열렸습니다. 로마서 5:12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자신과 그의 후손들은 오직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선고 아래에서 죄의 행위를 받아야만 합니다. 죽음의 문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뉴욕에서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소식이었습니니다. 그 이유는 몇 초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일이 매여 졸도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히 2:5).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죽음의 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시온의 문

시온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기다립니다. 다행히 오늘의 시편을 기록한 이유는, 죽음을 죽음의 문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시온의 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시온의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죄가 죽음이라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온의 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떠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마 7:13~14). 예수께서는 자신이 길요이며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 곧 자기를 부린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26:1~2은 구속받은 자들이 천천히 걷는 동안에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평을 삼으시리로다. 네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인, 의로운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길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와 만민과의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시 118:20).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문에 들어옵니다. 예수는 천국에 이르는 문입니다(요 10:7). 그분은 시온의 문입니다.

두 가지 문의 주인

우리는 죽음의 문과 시온의 문을 말하면서 놀라운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예수는 길이십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행히 죽음의 문 앞에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살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롬 14:8~9).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했다면, 이미 두 가지 문을 모두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이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제 1:8).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시온에 이르는 유일한 문

우리는 이미 두 개의 문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도 스스로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으로부터 뒤돌아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들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열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태워지고 지워지고, 여러분의 신장의 고통도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하는 순간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시온의 문을 준비하고서만 행할 것을 기다린다면, 이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문이 우리를 원할 것임에 틀림 없는 생명의 문과 생명의 아문과 함께 문을 소망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의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관세로 얻으려 함이라”(제 22:14). 아멘, 진실로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지나시 시온의 문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권능

권 은 아 (청년부,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단원)



패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은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이 많나니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리 죽는구나' (눅 15:15-17).

내 영광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굶주림, 그 고통을 알 수 없는 목마름, 난 당자의 그 절규를 차지 못할 것 같았다. 그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너로 패지를 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리던 죄인은 그로 굶주림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나? 내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일할 일꾼도 부족하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외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 4:6), "이에 제자들이 이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마 9:37).

주님께서는 이렇게 굶주린 당자를 일으키시듯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무지함은 주님의 지혜와 섭리를 언제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리오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리는 믿음이 없었다. 내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내가? 내가 왜? 내가 어떻게? 난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런 이성적인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죽어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 생각하니, 먼저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이런 해매임 속에서 선교를 준비하며 난 이런 것들이 깨져 그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길 바랐다. 주님은 선교를 하기 전에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사 43:7-8).

우즈베크 땅에는 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이 귀도 막히고 눈도 뜨지 못한 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하냐고 묻지 않았고, 자신이 바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제껏 믿었던 것과 다르다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뿐이었는데 그들은 "다(네, 그래요). 야 하주(나는 원해요)"라고 대답했다.

난 주님이 그 땅을 사랑하심을 보았다. 그 자리에 임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님도 느낄 수 있었다. 부고 차로 달리던 그 황량한 들과 나른 내지 위에 백백히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돌아와 그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말하시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지실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 43:12-13).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을 쓰시더라도 이 일들을 성취하시겠지! 우리가 이 일에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리니! 만 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술적허 렌저 텅 비어버린 또 다른 상실감이 있었다. 첫째는 내가 품었던 많은 문제들의 답에 대한 상실감이었. 내 삶의 답들은 단기 선교의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둘째는 하루하루 속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그 우즈베크 땅에 다 두고 온 것 같은 상실감이었다. 며칠 동안 여행의 피곤과 함께 이런 막연한 감정이 내 안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수요예배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전 2:13).

내 삶의 답들은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해결될 수 없었다. 그 답들은 성경 속에 있었고 나의 예배 속에 참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그 말씀은 심도 순종하는 나의 삶 속에 있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빛되신 주님을 다른 곳이 아닌 내 맘 속에서 항상 예배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계획과 지혜로우심에 잠겨 숨쉬 수 있는 곳을 내 안에 두셨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이다. 주님은 참 멋진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고 못난 우리를 꺾어내시며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나에겐 아니 주아예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시길 바라며 기도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남겨두고 온 사역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야 할 일이다. 이 새로운 부담감들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맑게 하는 큰 산이 되어주길 또 다시 소망한다.

신
자
가
어
서
10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이유① -죄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므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 신약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주된 답변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구원', '제사', 그리고 '정복'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제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만든 악을 정복하셨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 보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의 크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그림을 제시하셨다. 예를 든다면 성경 저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선장과 선부'로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묘사함으로써 그 관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묘사할 때 몇 가지의 그림으로 묘사하셨다. 그것들은 '화목'(propitiation)과 '구속'(redemption)과 '칭의'(justification)와 '화해'(reconciliation)라는 그림이다. 먼저 '화목'은 우리에게 성전에서의 의식을 통하여, '구속'은 시장에서 상거래 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칭의'는 법정에서의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화해'는 가정 혹은 가족 속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통하여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각각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록 목사)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카자흐스탄



2교구 단기선교단(9월 3일-13일)

알마티, 타라즈, 크질오르다 지역 선교

1. 카자흐스탄 무슬림들이 토속종교관 불에서 과감히 벗어나게 하소서
2.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3. 타라즈 지역의 지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보그라의 새생명

이주영 (고2, 고등부 방글라데시 B팀)

살림불의 씨앗

박주영 (고2, 방글라데시 A팀)

8월 8일 우리 선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지로 떠났다. 우리는 다카에서 2일을 보그라에서 5일을 사역했다. 다카 길거리에서 처음 전도를 하였을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 둘 가 버리고 몇 사람만이 남았다.

다음으로 다카 대학을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 곳에서 전도할 때는 길거리 전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였다. 12살짜리 남자 아이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다음 금요일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전제 여정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보그라에서는 4개조로 나뉘어서 사역을 했다. 내가 속해 있는 조는 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교도 있었고 초등학교도 있었다. 가정집을 방문하여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다. '에롤리아'라는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영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에 난 대학교에 갔을 때도 그 대학에 다니는 기독교인을 만나는 등,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 5일 동안 보그라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좋은 날씨를 주셨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첫날 다카에서 만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비전'이라는 현지인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지막날 공항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해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리라 믿는다.



선교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치타공의 농촌인 '살림불'이라는 해안가에서 우리 조의 선생님인 관계전도를 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한 일이다. 그의 가족은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음료수와 바나나, 빵도 우리를 위해 일부러 사 왔다. 정말 없는 형편에도 우리를 이렇게 맞아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복음을 전하였다. 사영리를 읽어주고 성경책과 전도지를 많이 주었다. 주위에 사는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복음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었다. 정말로 이 가정은 우리가 잠시 들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은혜받고 구원얻기를 원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 모두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들이 참 불쌍하다. 불쌍한 이들을 구하러면 아직도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충헌교인들이 더욱더 많은 선교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내내에도 기회가 된다면 가서 꼭!!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박철홍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귀를 막는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우리의 청각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지 의 사소통을 원하지 않는 표현일 뿐이다. 간혹 철저한 대화의 단절을 의도 하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우리 주리에는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는 다른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의 할 말만 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거나, 통화 중에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는 '익명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자신을 감추면서 자신의 할 말을 전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익명에게로 향하게 한 후, 자신은 제3자의 위치에 숨어서 상황을 즐긴다.

이러한 철저한 대화의 단절과 회피를 우리는 스테판의 순교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다. "처위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행 7:57).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화의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된다(행 7:59-60).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복음에 대한 철저히 거부했다.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행 7:51)이라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절을 시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신다. 이것이 공황이고 은혜이다. 인간과의 대화를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최선의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철저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때론 부름을 느낀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부름소리위해서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리듯이 마음을 단아해버린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비롯한 일일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당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당차이길 자처해 버리는 선택.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항상 계시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신앙 생활에 건강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성도의 죽음 준비하기

6.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선택

지금까지 우리는 본 난을 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는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딤후 4:18).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렐 17:13).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히 11:13).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빨리 죽어야 할까요? 이 땅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롬 5:2).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며, 심판 날에는 가장 관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고전 10:31). 성도가 아닌 자, 죄사함을 입지 못한 자,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롬 3:23). 그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했으므로 천국에 이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마음 가까이에 두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아주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조망하면서 맞설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이것은 아주 어려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힘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어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과 친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의 유한한 운명에 맞섰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죽음의 어둠을 내 쫓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권오영 기자)

주교에배담양

내 안에 거하라

16교구 수원 2구역 / 구역장 한숙정 집사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를 참 많이도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었다는 한 성도의 고백으로 수원 2구역의 말씀은 무르익었다. '도대체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주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심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삶의 가치와 중심이 이 땅의 것들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는 땅의 것들 즉,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권력따위는 바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따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땅을 소망한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며 권력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라는 자는 천국이 소망이 없는 자이며 주 안에 있지 않은 자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2절과 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과실을 맺기를 구한다. 그리하면 그 구한대로 반드시 과실이 맺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실이란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열매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성품이다. 즉,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을 닮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도를 닦듯이 내가 스스로 버리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지지도도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달려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성품은 열매를 맺고 익을 것이다. 이 열매는 금세 익지 않으며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에야 비로소 익는다. 그러므로 '성품의 열매가 익으면 그 때에야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생각은 버려라.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주변에 지은 죄가 많아서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전도를 꺼린다. 그렇다면 바로 그 삶을 벗어버리고 전도를 시작하라. 복음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맺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볼 때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품이 좋아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럴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가 성화되어 완전한 성품을 갖는 것은 하늘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완전한 은총이지 성품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 이 땅의 소망을 품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동부되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이 말씀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다.

구역원들은 각자 구역의 열매와 관계에서의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등을 맺었음을 고백했다. 이 열매들이 적지 않고 더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맺히길 기도한다.

(권요섭 기자)

영호실

3교구 이부남 성도 대퇴부 골절로 입원·수술했습니다.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니다. 수술 부위가 빨리 회복되고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7교구 오선진 성도(남74세) 위암으로 수술을 시도했다가 중단했습니다. 낙망한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이성환 성도(남79세) 빗길에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어 수술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김현정 성도(여32세) 급성 간염으로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병이 빨리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주일 찬송

320장 "주께서 문에 오셔서"

이 찬송의 작사자 조셉 그리그 목사는 음악공부를 할 수 없었던 가난한 환경에서 10세 때부터 찬송가를 지을 정도로 찬송사 작사에 재능이 있었다. 곡은 "나는 갈 길 모르니"를 작곡한 존 에드워드 곡이다. 작사자는 특별히 4장에서 죄를 "영혼을 파멸하는 괴물(soul-destroying monster, 원어표현이라 의역된 현 우리 찬송가 가사와는 다름)"이라고 쓰고 있는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찬송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불지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의 말씀을 주제로 지은 찬송가 4곡이 있는데 그 중의 한 곡이다.

- 1절: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 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내 머리 막대하느냐
- 2절: 십자가 상서 일으킨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 3절: 미 물은 옷을 일으킨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 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되시네
- 4절: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들어오면
주께서 나를 돌보며 큰 복을 내리 주시리

2분의 2박자 곡은 2분음표가 1박이고 4분음표가 반박이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장엄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부드러운 것이어야 한다. 이 곡도 그렇게 장엄(마에스트로:maestro)하면서 부드럽게(dolce) 불러야 한다.

(한양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예순' 성도를 소개합니다



이러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으나, 그저 교회를 오고 갈 뿐 예수님께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전도하여 이제서야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첫 날,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예배도 드린 삶이 즐겁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성장담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구역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세요.

(한숙정 통신원)

모델

김성겸 (전도사, 중등2부 부지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나 꼭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만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본 것'을 배운다. 이렇게 부모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모델'이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예수와 신자 사이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비유로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9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10절)"라는 교사들을 사용하신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이 관계성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모습이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안에 거하시는 모습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예수의 관계는 예수-우리 관계성의 모델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신자의 관계를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사이의 관계성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신다(요 15:12).

우리의 말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바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예수의 관계를 담은 예수-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어서, 그들이 것처럼 예수와 교제하게끔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현실은 자녀들의 모델이 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념과 관습만을 훌륭한 모델로 제시하기도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모델이 전파되는 순서가 하나님-예수의 관계로부터 단계적으로 예수-신자의 관계로, 그리고 신자-신자의 관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나님-예수-우리 관계는 수직적이지만 신자-신자 관계는 수평적이다.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예수의 모델을 소개하고, 부모-자녀의 관계 속 신자-신자 관계는 예수-우리 관계를 따르도록 소개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델을 소개해준다 함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예수 관계성이 예수-우리 관계성으로 잘 드러나도록 할 때에야 부모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의 창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주의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도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개한 것이 아니라(요 20:31), 아예 처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는, 마가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언제나 마가의 분명한 선언이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아닌가 하는 논리가 필요 없이 즉각적인 순종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아무래도 성급한 베드로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그저 우스갯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도 그 성급함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마가도 성교행에서의 성급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성급함이 실수를 낳기도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십자가로 먼저 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말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동환 목사 (출판국 지도)

중등1부 수련회 후기

♥ 31만 가부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만큼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갈 것이다. 아바, 엄마 말씀도 잘 들을 것이다. 또래까지 설명서 외치는 것 모두 다 회개하고, 앞으로는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아무리 완벽하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고, 지상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를 할 수밖에 없기고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솔직히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다녔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태도를 바꾸려 한다.

내가 세상에 너무 몰들어서 힘들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닮는 노력으로 조금씩 바꾸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2박 3일의 수련회였지만, 정도 들고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이런 수련회가 있다면 꼭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 했던 사람의 고백도 저를 해줬다.

♥ 25만 김다혜

수련회에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점이다.

예수님이 어떤 심장을 가지셨는지, 누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 수련회에 얼마, 아바 때문에 언짢아 왔지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하나님, 예수님께 부끄러운 일만 해왔는데, 여울수련회를 계기로 많이 회개하고, 앞으로 열심히 믿고 말씀 따라 생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고 싶다.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비록 학원에는 못 갔지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 학원에 갈 것보다 몇 배가 더 좋았다.

정말 수련회에 잘 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한 친구들 모두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월드컵 신앙

가자 16장으로! 신앙의 월드컵은 OO 교회에서, "월드컵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대형스크린 완비, 여러 가지, 응원하라 오세로 XX교!"

지난 6월 우리 주위에 실재로 나뉘어다니고 회교신선 문구입니다. 부활의 오신 날을 기리는 불교계에서도 도처에 월드컵 성공예회를 기원하는 연을 걸어 놓았습니다. 한교도도 부활절 연애에서 온통 월드컵 성공예회를 기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부활절 주일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예수보다 낫습니다. (기독교 사상, 6월호, 월드컵신앙에서 벗어-이전판)

사도들 중 요한만큼 영적 교회를 쥐었던 이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친형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거동락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주 예수를 위해 쓰러져 갑니다. 모두가 순교하는 동안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과 사명이 그의 일생에 깃들었을 것입니다(요 1:22). 그런 그가 초대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지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밋도심의 요한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사도 요한이 새로운 것을 제창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이들을 말합니다.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영으로는 세상과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점점 세속화되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사회·정치·도덕 어느 것 하나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위기에 관순하여 영적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세속적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성서가 취급하는 진리와 생명의 세계는 뒷전입니다. 본분되어 살고자 하는 이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처처에 교회는 말만만 전할 뿐 아니라 좋은 적입니다. "주어, 주어" 외치는 곳은 많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곳은 적습니다(마 7:21).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 교회는 영적 순결성을 지키며 복음만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각기 무슨 새로운 신학이나 신종교를 만들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전통 감동되어 있으며, 성령이 아버지의 뜻이라(요 6:40) 명시하는 진리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한번 잘못되었던 것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키는 때에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잘못된 선(先)작업을 깨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외도 말씀으로'(루터)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교회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복음만을 사수(死守)코자 하려는 문자 그대로 순교자의 각오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 경 배 (외선부 교사)

- [illegible]